# 나주 축산물공판장 함평 이전설 '솔솔'

## 인근 부지매입 어려워 증설 막혀

## 지역경제 효자…축산농들 촉각

나주지역 축산농가들이 '농협 나주 축산물공판장'의 함평 이전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협 나주 축산물공판장은 지난 1992년에 개장해 지금까지 240여억원을 투자한 상태로 매년 도축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20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일일 도축 능력이 소 110두와 돼지 1100두로 고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공 업체의 직원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효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부터 '농협 나주 축산물공판장'이 함평으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파다해 지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가동중인 '나주공판장'의 부지가 협소해 인근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옮겨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실제로 '나주공판장'은 가공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인접 부지인 운곡동 산 51번지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지목이 자연녹지로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8월부터 함평의 A도축장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전설 등이 입소문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 관계자는 "함평의 A도축장을 매입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춘 축산물 가공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직 나주공판장의 이전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나주공판장의 축산물 도매시장 기능과 함평의 가공시장 기능을 한데 묶어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나주공판장' 이전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함평의 도축장 신설 사업비로 600여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150여억원 가량이 부지 매입비인 것으로 알려져 나주공판장의 이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 나주 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가공공장 신설을 위한 추가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있다" 며 "이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함평 이전 문제가 거론되는 것일 뿐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옛 방식 그대로…친환경 김 채취** 해남군 황산면 산소리 지주식 김발에서 어민들이 김 엽체를 채취하고 있다. 어민들은 유기산 대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지주식 전통방식을 통해 옛날 맛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친환경 안전축산 직접지불제 신청

#### 16일~31일 접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장맹수)은 광주·전남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축산물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 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농장지정과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신청서에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장 소재지 관할 품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7개 축종)은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및 오리알이다.

한우의 경우 유기축산물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 축산물은 마리당 6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062-970-6243)/송기동기자 song@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명흠 장흥군수

# "블루오션 말산업에 승부 걸겠다"

이명흠 장흥군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되는 '통합의학센터' 조성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 군수는 2012년의 군정 운영 방향과 역점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농어업 경쟁력 제고 ▲비교우위자원을 활용한 매력있는 건강 휴양도시 조성 ▲생산적인 복지 지원 및 주요 SOC 조기 확충을 제시했다.

우선 총 250억원을 들여 안양면 '로하스 타운'내에 7000여평 규모로 건립하는 '통합의학 센터'는 올해 국비와 지방비 13억원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양분된 진료체계로 아직 통합의학에 대한 연구시설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합의학 센터'는 획기적인 의료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또 이 군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흥읍 해당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전남개발공사가 총 2178억원을 들여 292만㎡ 부지에 추진하는 '바이오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장흥군민의 젖줄인 탐진강의 수질정화와 생태보전을 위해 올해 100억원을 들여 석대보에서 부산교까지 2.7㎞를 수질정화 습지, 평여울, 탑방로, 테크, 초화류, 호안, 출렁다리 등을 갖추는 '탐진강 2차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통합의학 센터 조성 역점

### 바이오 식품산단 총력지원

### 탐진강 생태하천 탈바꿈

또 이 군수는 "'장흥~제주를 잇는 회진면 노력항이 제주관광의 명실상부한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312억원을 들여 호안도로(1240m)와 물양장 및 방파제(270m) 등 해양 물류기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현재 정주어항인 노력항을 연안항(국가관리)으로 승격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읍 남외리~용산면 어산리(5.7㎞) 구간 공사는 지난해 말 익산 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상태이다. 나머지 용산에서 회진을 잇는 구간도 올해 실시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 군수는 "이미 전국에 명성을 알려 인기를 얻고 있는 '장흥 토요시장'내 한우 육질을 높이기 위해 관산읍 삼산 간척지 매립지에 20억원 규모의 '방목 축산단지'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 한겨울에도 사료작물이 자라 소들이 자유롭게 자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말산업은 장흥군이 '블루오션'으로 승부를 걸고 있는 역점사업이다.

이 군수는 "군 산하조직에 말 산업담당 부서를 신설해 한국말산업협회와 서라벌대와 이미 MOU체결을 맺은데 이어 말사육 시범농가를 육성하고 올해부터 대덕읍에 소재하는 한국말산업 고등학교 신입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군수는 앞으로 종마생산기지와 승마장, 승마 트래킹 코스를 개발해 장흥을 '말산업 메카'로 부상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서 실시한 장흥군 사회지표 조사결과 군민의 83.6%가 '살기좋은 지역으로서 거주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편백숲, 우드랜드, 토요시장의 명소와 한우, 표고버섯, 키조개, 바지락, 갯장어 등 특산물로 어우러진 천혜의 입지여건을 갖추 장흥이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명흠 장흥군수는 "앞으로 3~4년이 지역경제의 성장엔진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옛 명성을 뛰어넘어 중남부권의 중심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장흥의 중흥기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슬로시티 청산도 가는 뱃길 편리해진다

### 400t급 카페리 취항

'슬로 시티'로 인증된 완도 청산도를 오가는 관광객들의 뱃길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완도군 청산농협은 청산도에서 추가로 투입된 '슬로시티 청산호'(432t)의 취항식을 갖고 설 명절 전인 19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하게된다.

이날 취항식에는 이진 완도부군수와 박삼재 군의회의장, 지복남 청산농협장, 군의회의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청산농협은 36억원을 들여 '슬로시티 청산호'를 새로 건조했다. 여객 500명과 5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으며, 14노트의 속력으로 완도에서 청산도간을 50분대에 주파한다.

청산도는 '슬로시티'로 인증된 이후 전국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10년도에 비해 10만명이 증가한 33만명이 방문했다.

특히 '슬로 걷기축제'가 열리고 국제 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세계 슬로길 1호'로 인증을 받은 지난해 봄에는 14만명이 방문했다.

이진 완도부군수는 "대도시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군외~남창간 국도13호선 확·포장 공사도 상반기중에 완전개통 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목포·완도항 여객선 이용객 600만 돌파

목포와 완도항을 중심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했다.

12일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에 따르면 지난해 619만명이 여객선을 이용해 전국 대비 약 40%를 점유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드라마 '봄의 왈츠'와 영화 '서편제' 등의 촬영지로 알려진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전국 연안 여객선중 최대 규모인 1만5000t급 2000명을 동시 수송할 수 있는 초대형 여객선인 '씨스타 크루즈'가 지난해 1월부터 목포~제주간을 취항함에 따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다.

목포 해양항만청 박성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관내 연안여객선의 현대화와 편의시설 확충, 서비스 개선 등에 따라 앞으로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전남농기원 장영모 지도사

### 업무중 급성뇌경색 쓰러져

전남도 농업기술원 한 공무원이 업무중 과로로 쓰러져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장영모(53) 농촌지도사는 지난 31일 야근도중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장 지도사는 평소 투철한 책임감으로 상하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송기동기자 song@